

# “전주예술고 일반고 전환 미승인”

### 전북교육청, 예술인재 유출 우려·학교운영 내실화 자구노력 부족 등 지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교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전주예술고(이하 전주예술고)에 대해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특수목적고 지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7일 특수목적고 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신입생수 격감으로 재정 부담이 심각해지자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전주예술고에 대해 미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주예술고가 특수목적고 지정 목적인 전문 예술인 양성이라는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학교교육의 정상화 가능성,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 속에서 도내 비평준화 일반고나 특성학교 신입생 모집에 미칠 파장, 학교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법인 자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또한 지난 6월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특수목적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통' 등급으로 평가돼 특수목적고로 재지정된 점, 전북 지역 예술 인재들의 타 시도 유출 우려, 학교의 재정 상황만으로 특수목적고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예술고의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신청 건을 검토했다.

특히 위원회는 전주예술고가 설립 당시 '학교경영과 유지'는 학교 수입과 설립자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받았음에도 2019년 학교 회계 세입 총액(7,559,888천원) 중 법인전입금 비율이 0.11%(8,726천원)에 그치고 있으며, 매년 학생 증원율이 낮아지고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적 한계에 직면했다면서도 학생 모집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반적을 과원으로 운영하는 등 교직원 감축 등 학교운영 내실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전공 과목 축소, 예술계로서의 정체성 모호 등 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해 대학입시에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전주예술고는 전라북도 유일의 예술계열 사립 특수목적고로서 1995학년도부터 전국 단위 학생 모집으로 5개 학과, 15학급으로 인가받았으나, 2007년 3개학과 21학급으로 개편해 현재 음악과, 디자인미술과, 공연예술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8년 71.5%, 2019년 62.9%, 2020년 59.6%로 매년 학생 증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는 학교 스스로 학급을 감축해 학교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전국 단위 학생선발권이 보장된 만큼 질 높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보완책을 마련해 전북 예술 교육의 독자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4단계 BK21 사업 '전국 9위'

### 21개 연구단·팀 선정 쾌거 글로벌 인재양성 큰 밑거름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은 4단계 두뇌한국21(이하 BK21) 사업에 모두 21개 교육연구단·팀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예비 선정 결과에 따르면 전북대는 14개 교육연구단과 7개 교육연구팀이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 같은 결과는 예비 선정에 이르기까지 68개 대학 중 9번째로 많은 교육연구단·팀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전북대가 글로벌 연구 중심 인재 양성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부는 전북대를 포함한 5개 이상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대학에 '대학원혁신지원비'를 추가

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원혁신지원비는 BK21 참여 교육연구단 수와 참여 교수, 지원 대학원생 수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되며, 대학원 국제 경쟁력 강화, 연구 환경·질 개선, 대학원 교육 개선, 대학원생 복지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북대가 대학본부 차원에서 대학원 제도 개혁을 추진,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4단계 BK21 사업은 정부가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7년 동안 매년 4천80억 원을 투입, 석·박사급 대학원생 양성을 지원하는 대형 연구진흥 사업이다. 예비 선정 이후 교육부는 대학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9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 “채소와 친해졌어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편식예방 요리체험 호응

전주시 덕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노정옥)가 6일 관내 학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편식 예방을 위한 요리체험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8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체험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접목한 상황극과 오감체험을 통해 채소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채소를 이용한 건강 자동차 만들기 놀이 활동과 요리활동 및 시식을 통해 어린이들이 채소와의 친숙함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주시 덕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노정옥)가 6일 관내 학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편식 예방을 위한 요리체험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 학부모는 “오늘 채소를 활용한 요리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도 체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평소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가 오늘 체험활동을 통해 채소를 더욱 가까워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정옥 센터장은 “채소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황극과 요리 체험 등을 통해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오늘의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채소와 친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농생명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성료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사업단장 윤영선)은 농·생명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계획한 '농생명 캠퍼스'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이뤄진 이번 교육에는 장수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전북대를 비롯해 도내 대학 학생 24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철저한 발열 체크, 연수 공간 방역 및 학생 개인당 개별

숙박 등 방역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이 평소 어려워하는 전공과목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식품, 종자 분야의 전공 교육과 실습활동이 진행됐다.

혁신도시 내 농생명 관계기관인 농촌진흥청 담당자로부터 농진청 소개 및 특강과 학생들의 식품제조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전통주 제조체험 등이 이뤄졌다.

식품공학과 홍철민 학생은 “코로나

19로 대부분의 교육이 취소된 상황에서 방학 중 전공 관련 심화 교육을 통해 학기 중 농생명 분야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영선 사업단장은 “그동안 코로나 19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온라인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오프라인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한 이번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운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도내 검정고시 시험장소 4곳

### 22일 실시... 전주아중중·솔빛중·평화중·전주교도소

전북교육청은 오는 22일 실시되는 2020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를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e.ga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초졸 99명, 중졸 168명, 고졸 844명 등 총 1,111명이 지원, 전주아중중학교, 전주솔빛중학교, 전주평화중학교, 전주교도소 등 4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별 수험번호에 따른 시험장소는 도교육청 [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응시자는 초졸 검정고시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수험표, 검은색 볼펜을 준비하고,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도시락 등을 준비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

시험실별 수용인원 20명 이하 배치, \* 전 응시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의심 대상자에 대한 조치, \*시험장 사전·사후 방역소독, \*시험장 출입구 단일화 및 출입찰차도 강화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자 등으로 현재 입원치료 중이거나(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사전신청 기간 동안 별도시험장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보건소에 의출 허가 신청 승인을 받아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시험을 위해 응시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며 “응시자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진행에 적극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합격자 발표는 9월 11일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보건·흡연예방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보건·흡연예방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7일 전북대 간호대학에서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보건·흡연예방교육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을 향상시키고 학교흡연예방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시대, 흡연예방은 필수를 주제로 국가금연지원센터 이상규 강사가 특강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와 흡연의 연관성 ▲신종 담배의 쟁점 ▲고도흡연자 관리 방법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 등이다.

/정은성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